

5. 기업분석 (2)

포스코퓨처엠(003670)

LMR 양극재 개발 성공, 양산 기술 개발 착수까지

2차전지 소재·기초소재 생산 기업

동사는 '63년 1월 설립된 삼화화성과 '71년 5월 설립된 포항축로가 '94년 합병을 통해, '01년 10월 코스닥 시장 상장, '19년 5월에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음극재를 동시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2차 전지 소재 제조·판매 사업과 내화물·라임화성의 기초소재 제조·판매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이다. '24년 기준 매출은 2차 전지 소재 사업 63.2%, 기초소재 사업 36.8%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포스코홀딩스(주)가 59.7%의 지분율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5월 LMR 배터리 시험 생산 성공 밝혀, 엔트리 전기차에서 프리미엄·대형 전기차 시장까지

동사는 23년부터 전기차 관련 기업들과 상용화 기술을 공동 개발해온 끝에 지난 27일 LMR 양극재의 개발을 완료, 연내 양산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2년 7월 GM과 합작법인 얼티엄캠(Ultium CAM)을 설립해 북미향 배터리 핵심소재 공급협력망을 구축했다. 현재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아에서 1단계 공장 일부 라인 준공에 들어갔으며, 2단계에 걸친 투자를 통해 연간 총 6만 3천 톤 규모의 양극재와 4만 5천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완공 이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 - 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에 양극재를 납품하고, 완제품 배터리를 GM 산하 전기차 모델에 적용하는 얼티엄캠 - 얼티엄셀즈 - GM 밸류체인을 통한 견고한 협력관계로 점유율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양산기술을 마련한 후에는 기존 삼원계 양극재 생산라인을 활용해 수주 즉시 생산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따라서 안정된 공급체계를 바탕으로 LMR 양극재의 성능을 입증해 전기차의 모든 라인업에서 LMR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얼티엄캠양극재1단계 공장전후



자료: 포스코퓨처엠, ARIS